

# 어르신 폭염 취약...경로당 '자동 제세동기' 태부족

### 광주 1천384개소 중 23곳만 설치...전체 1.6% 불과 여름철 심장 건강 '우려' 불구...“예산 없어 어려워”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려 심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경로당에서 비상 상태를 대비한 자동 제세동기(AED)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 제세동기 의무 설치 장소 대상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 포함됨에 비해 경로당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관련 대책 마련

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동 제세동기란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한 것을 말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경로당은 총 1천384개소다. 각 구별로 동구 116개소, 서구 235개소, 남구 246개소, 북구 373개소, 광산구 378개소다.

이처럼 광주에 1천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지만 이 중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된 경로당은 각 구별 동구 13곳, 서구 0곳, 남구 7곳, 북구 2곳, 광산구 0곳 등 총 22곳이라 설치율이 1.6%에 그쳤다.

자동 제세동기가 60곳 중 1곳 꼴로 있는 셈이라 폭염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이 자칫 쓰러지면 초기 응급조치를 놓칠 '위험'이 있다.

실제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60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 폭염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에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령대별 폭염 질환 환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6천909명)은 전체 36.7%로 1/3을 넘어섰다.

또 1천424명을 기록한 20대와 비교했을 때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윤남식 전남대학교 순환기내과 교수는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여름철 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심장의 부하를 증가 시켜 관상동맥 질환을 발생 시키거나 악화 시킬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 등에 의한 돌연사를 대비하기 위해 경로당에 자동 제세동기 구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동 제세동

기를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생존율이 3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자치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자동 제세동기를 모든 경로당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자동 제세동기 설치시 1대 당 2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5년에 한번씩 2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배터리를 갈아줘야 하고 2년을 주기로 10만원의 비용을 들여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패드를 교체해야 한다.

이처럼 설치비 뿐만 아니라 별도 운영비도 필요해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실제 보급까지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 예산만으로는 모든 경로당에 설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노인 복지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 여름철 심장 건강을 위해 광주시 혹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급급차, 공항, 선박, 공공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지원 강화로 권고 돼 있다. /김대기 기자



다시 준비되는 임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재 확산세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 광주시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고 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코로나 재 확산으로 문 닫은 지 80여일만 인 오는 11일부터 운영된다. /김대기 기자

## 미성년자 '빛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성년 되고 '상속 빛 > 재산'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원칙적으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한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빛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중고차 판매 후 다시 훔친 외국인 일당 검거

### 보조키 이용 차량 훔쳐

중고차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차량을 다시 훔친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9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영암에서 지난해 9월 판매한 중고차를 판매 후 보조키를 통해 다시 훔친(특수 절도) 혐의로 외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와 공범 B씨를 검거 후 지난 6일 긴급체포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중고차 판매를 진행하고 거래가 완료된 후 가지

고 있던 여분의 차키를 이용해 며칠 뒤 주차해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고 거래장소를 피해자 직장 주변으로 정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장기간 탐문수사 및 다수의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활동 지역을 파악하고, 그 주변에서 번호판에 등록된 차종과 다른 차종을 운행하는 용의차량을 특정해 지난 6월 15일 광주 모처에서 은신 중인 공범 B

씨를 검거했다.

잠적한 A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적 및 집중 수사 끝에 지난 6일 충북의 모 빌라에서 검거 후 구속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조차 못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중고차 거래시 여분의 차키를 주지 않으면서, 거래장소를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의 장소로 정하는 경우에는 절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복기 기자

##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2명 송치

### 사체 검시 중 거짓말 들통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남성 2명이 송치됐다.

9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범인 도피 교사·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40대)씨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B(5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오후 9시32분께 진도군 한 마을에서 편도 1차로를 보행하던 C(70대)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난 뒤 지인 B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 대신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고 주장한 혐의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교통 조사관들이 피해자 C씨의 사체를 검시하던 중 드러났다.

운전자라 주장하던 B씨는 "좌회전 하다 사고를 내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보행자를 쳤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는 몸 좌측에 상처가 없이 두부 쪽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 A씨가 사고 지점에서 약 800m를 달아난 뒤 B씨를 불러냈고, 뒤이어 B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등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광양 교차로서 SUV 차량 가로등 들이받아 2명 숨겨

광양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0분께 광양시 성황동 한 교차로에서 A(63)씨가 운전하던 SUV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B(63)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 명 모두 숨졌다.

사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교통섬 내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인근 절개지에서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과속 또는 차량 결함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 경찰에 주먹질 만취 30대 불구속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공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윤근 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